

공단근로자의 작업복 디자인 실태 및 선호도 연구⁺

박혜원* · 박진아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The Actual Wearing Condition and Preference of the Working Uniform Design in the Industrial Complex

Park, Hye-Won* · Park, Gin-Ah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Functional, aesthetic and symbolic working uniforms in the industrial complex are demanded by employees and employe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the actual wearing condition and preference of the working uniform design in the industrial complex. The research selected 7 enterprise subjects located in the Changwo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nd adopted a questionnaire method. 912 workers categorized into 4 work groups according to their work posts replied in total. The data and the degrees of satisfaction/preference of the working uniforms were analysed into descriptive statistics and F-tests by using the SPSS S/W packag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yle of the working uniform was the standard two-piece style. Second, the degree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entrepreneurial image implied to the working uniform was 2.83 throughout the 5-scale evaluation. In addition, the degree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working uniform colors was in between 2.94 and 2.96. Third, unsatisfied parts of the upper and lower uniform garments were: sleeve > pocket > collar; and waist belt loop > hip pocket > hem line respectively. Fourth, beige was the most preferred color for the working uniform top and bottom both. The most preferred color images were the calm and safety and the bright and light in order. Especially, the demand on the safety factors and soil proof colors of the outside field workers was much higher than the clerical workers. Fifth, the blouson type jacket with shirts collar or soutien roll collar was more preferred to than the casual style; and the straight formal pants were more preferred to than the casual/sweat sports pants styles. Sixth, inner pockets to keep the mobile phone and pens were required for upper garment details specially by manufacture workers. Increase of the waist belt loop numbers was required by all work groups.

⁺ 본 연구는 2007년도 창원대학교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Park, Hye-Won, Tel.+82-55-213-3494
E-mail: hwpark@changwon.ac.kr

Key Words : working uniform(작업복), working uniform design(작업복 디자인), actual wearing condition(착용실태), preference of the working uniform(작업복 선호도)

1. 서론

작업복이란 직장단위별로 일정한 형태와 색채, 소재를 통일하여 디자인된 것으로 근무 시 착용하도록 지정된 일종의 유니폼이다. 작업복은 기능복 뿐 아니라 사회성을 잘 나타내는 의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작업복이 사회에 있어서 그 기업의 표시이며 기업의 구성원에게는 공통분모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다른 기업과 구별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작업복은 일반복식과 달리 목적에 의해서 입는 옷이므로 규율에 의해 조직적이고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사원 간에 동료의식과 일체감을 불러 넣어주고 집단에의 귀속감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일반인 또는 타기업인과의 구분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훈(Horn)에 의하면 직업인의 의복은 직업적 신분 상징의 역할이 매우 커서, 육체노동자는 작업복(overall, coverall) 및 유니폼에 의해 쉽게 구별되었고, 반면 정장 등은 정신노동자(white collar)와 관련되었으며, 이외에 직물, 색상, 의복무늬, 의복의 청결상태 등도 직업특성을 상징하는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¹⁾. 그러므로 작업복은 개인의 표현인 동시에 소속된 집단의 성격을 반영하여 시대와 집단 간의 문화적 측면을 강하게 반영한다.

작업복의 특성은 유니폼이 갖는 특성과 같이 착용 목적에 따라 기능성, 상징성, 심미성의 세 요소가 요구된다. 유니폼을 생산, 사무, 서비스 등의 근무환경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생산부문에서는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사무부문은 상징성에 중점을 두며, 서비스 부문에서는 심미성을 중점을 두어야 하나 어느 부문에서든지 기능성, 상징성, 심미성 중 어느 한 가지가 빠져도 능률증진, 안정성, 노동의욕의 향상 등을 달성할 수가 없다. 작업에 적합한 작업복을 착용하는 회사는 작업환경을 명랑하게 하고 작업원의 기분을 부드럽게 하여 직업의 능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²⁾.

오늘날 공단 근로자들의 작업복도 산업구조의 변화와 근로자나 고용주들의 의식이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기업의 관리자와 착용자의 요구에 따라 작업복의 기능성에 대한 필요조건도 다양하며, 디자인과 같은 미적요소 뿐 아니라 기업의 정체성이나 이미지 또한 반영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기능성만 중시거나 작업복 단가가 저가인 경제성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복을 착용하는 착용자의 요구를 반영시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소비생활이 고급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도 관련되고 있다.

작업복의 형태는 스타일 그 자체의 커다란 변화보다는 기업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고 동종업체와 구별이 용이함과 동시에, 여러 사람이 같은 옷을 입어야 하는 작업복의 특징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복잡한 외형 실루엣보다는 의복의 색상, 심볼마크, 트리밍에 의해 특성이 나타나게 한 것으로 작업능률 향상을 고려하여 각 회사의 근무환경, 작업조건이나 작업동장 등을 분석하여 쾌적하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고려한 형태이어야 한다. 즉 작업복의 형태는 상징성, 기능성, 심미성을 총괄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표현되어야 한다³⁾.

한편 기업의 이념과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있어서는 작업복의 색채를 활용할 수 있다. 색채는 이미지형성에 적합하며 눈에 띄기 쉬운 색으로써 타사와의 차별성이 뛰어나고 또한 여러 가지 소재로 재현이 용이하고 관리하기 쉬운 것이 좋다. 또한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되며 주위와 조화되는 색채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생산현장에서 착용하는 작업복은 생산 능률 및 신체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소속감 및 회사의 이미지가 부여되어 직업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정서적 만족을 함양시키고 산업 시설 현장의 안전까지 담당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기업체에서는 사무직과 생산직 간의 위화감 조정을 완화시키기 위해 동일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동일한 작업복의 착용은 작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동일한 작업복을 착용하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을 통한 화합을 중요시 여기는 상황 때문일 것이다.

기업에서 유니폼의 착용은 80년대에 들어서 기업의 치열한 경쟁분위기 속에서 기업 이미지를 통합함으로써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가 도입되어 활발하게 그 기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⁴⁾. 이러한 CIP 작업 중에서 공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유니폼 분야인데, 해당 기업의 사회적 역할, 기업의 근로자들과의 공동 목표, 기업의 이상, 그 이상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동목표 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체의 유니폼은 CIP 작업 중 가장 대표적인 조직의 이미지라 할 수 있겠다⁵⁾.

선행 작업복연구는 특수 작업 분야의 환경과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⁶⁾⁷⁾⁸⁾⁹⁾¹⁰⁾¹¹⁾¹²⁾가 구성학적, 환경학적,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작업복의 디자인 현황이나 작업복 디자인 선호도 조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실제 작업복을 착용하는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작업복 디자인 현황과 만족도 선호도 조사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공단의 대기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 착용하고 있는 작업복의 디자인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편리하고 심미적이며 상징적으로 우수한 근무복 디자인 개발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하루의 많은 시간을 생산 현장에서 착용되는 작업복의 효과적인 디자인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내용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창원 공단 기업체의 생산현황¹³⁾을 바탕으로 근로자수가 많은 7개 대기업체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선정된 7개 업체는 창원 공단 지역에 소재하며, 업종은 기계와 자동차, 조선을 포함한 운송장비로 구분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무경력, 근무업종, 근무시간, 작업의 종류, 작업장 규모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 내용은 조사대상 기업 및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현재 착용중인 작업복 디자인 현황 및 만족도 그리고 작업복 디자인 선호도이다.

2. 조사방법 및 분석

공단 근로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작업복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설문 구성을 위해 기계, 자동차, 조선분야의 작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관리 책임자와 직접 면담을 하여 현재 착용되는 작업복의 유형을 확인하고, 구입방법 및 치수 등 각 기업체 작업복의 일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였다. 면담결과와 문헌조사,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내용은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일반사항 8문항과 작업복의 착용현황 7문항, 디자인 만족도 9문항과 디자인 선호도 8문항 등 총 3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2007년 7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와 작업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기계, 자동차, 조선, 철도 산업분야의 주요 7개 업체를 선정하여 총 14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고 이중 912부가 분석되었다. 설문기간은 2007년 8월6일부터 8월 30까지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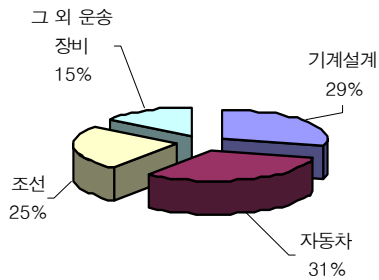
자료는 SPSS package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작업복의 만족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간의 관계는 F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작업복 만족도와 선호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하고, 요인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하여 평균값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 분포

조사대상 업체는 기계분야 4개 업체와 자동차, 운송장비, 조선 분야 3개 업체의 총 7개 업체로 구성되었다. 기계분야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배부한 600부 질문지에 대해서는 분석 가능한 질문지 266부 회수로 44.3%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자동차, 조선을 포함한 운송장비 분야 3개 업체에 대해서는 800부 질문지 배포에 분석 가능한 질문지 646부가 회수되어 80.8%의 회수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1,400부의 설문지에 912부가 회수되어 65.1%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조사대상 업체의 업종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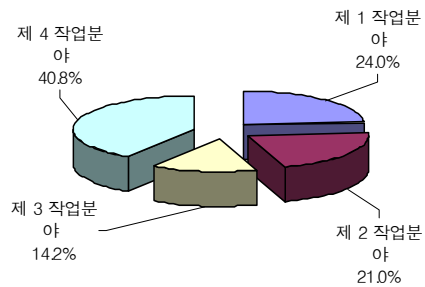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기업의 업종 분포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무경력, 근무업종, 근무시간, 작업의 종류, 작업장 규모 등을 조사하였다<표 1>. 성별은 남자가 92%로 대다수였으며 연령 분포는 20~40대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8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54.9%, 대졸 이상이 43.4%를 차지하여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학력이 높았다. 월 소득에 대한 응답은 881명이 응답하였는데, 100~

150만원 미만이 98명으로 11.1%, 200~250만원 미만이 224명으로 25.4%, 250만원 이상이 425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4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장기근속 근무자가 전체 응답자의 63.0%인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900명이 응답을 하였는데 136명의 15.1%가 3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15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응답한 작업자의 수가 433명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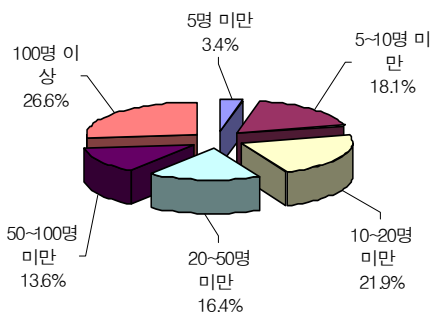
한편 전체 조사대상자의 근무부서를 조사하고 작업자의 신체 움직임의 강도와 빈도를 기준으로 하여 4분야로 구분하였다. 제 1 분야는 서무, 총무, 영업, 생산기획 등 사무직이며 제 2 분야는 QC, 물류, 구매, 검사 등 생산 관리직, 제 3 분야는 기계, 전기, 설비 등의 생산 설비 직이며 제 4 분야는 용접, 프레스, 도장, 조립 등 생산 제조 직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2>. 작업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의 근무인원을 조사하였다. 근무인원이 5명 미만인 근로자는 3.4%, 5~10명 18.1%, 10~20명 21.9%로 중소 규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40.0% 정도였다. 소속부서의 근무인원이 20~50명인 경우가 16.4%, 50~100명인 경우가 13.6%로 중대규모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30.0%를 차지하였다. 근무인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작업장에 소속된 작업자의 수는 전체 응답자 899명의 26.6%인 239명이었다<그림 3>.



<그림 2> 조사대상 근로자 작업분야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N	유효 %	특성	구분	N	유효 %
성별	남자	809	91.7	결혼여부	미혼	223	24.8
	여자	73	8.3		기혼	676	75.2
	결측값	30	100.0		결측값	103	100.0
	합계	912			합계	912	
연령	20세 미만	17	1.9	근무경력	3년 미만	136	15.1
	20~30세 미만	189	21.0		3~5년 미만	104	11.6
	30~40세 미만	234	26.0		5~10년 미만	93	10.3
	40~50세 미만	348	38.6		10~15년 미만	134	14.9
	50세 이상	113	12.5		15년 이상	433	48.1
	결측값	11	100.0		결측값	12	100.0
합계	912	합계		912			
학력	중졸	15	1.7	소속부서 규모	5명 미만	31	3.4
	고졸	491	54.9		5~10명 미만	163	18.1
	대졸	332	37.1		10~20명 미만	197	21.9
	대학원 이상	56	6.3		20~50명 미만	147	16.4
	결측값	18	100.0		50~100명 미만	122	13.6
	합계	912			100명 이상	239	26.6
월소득	70~100만원	12	1.4	1일 근무시간	5~8시간 미만	51	5.7
	100~150만원 미만	98	11.1		8~11시간 미만	764	85.3
	150~200만원 미만	122	13.8		11~14시간 미만	73	8.1
	200~250만원 미만	224	25.4		14시간 이상	8	0.9
	250만원 이상	425	48.2		결측값	16	100.0
	결측값	31	100.0		합계	912	
근무업종	기계설계	266		29.2	평균 근무일수	주 5일	550
	자동차	283	31.0	주 6일		292	33.5
	조선	228	25.2	주 7일		29	3.5
	그 외 운송장비	135	14.8	결측값		41	100.0
	결측값	0	100.0	합계		912	
	합계	912					



<그림 3> 조사대상 근로자 근무 작업장 규모

주별 근무일수는 63.1%(550명)이 주 5일간 근무하고 있으며, 5일 초과~6일 근무자가 33.5%(292명)이었고, 일일 근무시간은 8~11시간이 85.3%(764명)을 차지하여 근무자가 작업복을 착용하는 시간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3. 착용중인 작업복 디자인 현황 및 만족도

1) 작업복 보유 수량

조사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보유 작업복의 종류와 수량의 전반적 사항은 <표 2> 와 같다. 춘추복 상의는 1~2벌 보유하는 경우가 471명(52.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350명(38.8%)이었다. 춘추복 하의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424명(47.0%)으로 가장 높았고, 춘추복 하의는 53%이상이 1벌 이상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복 상의 보유 수량은 1~2벌 보유 655명(72.5%)으로, 춘추복 상의에 비해 하복 상의의 보유 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복 하의 보유수량은 1~2벌 보유 588명(6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80% 이상이 1벌 이상의 하복 하의를 보유함을 알 수 있었다. 동복상의를 1~2벌 보유 680명(75.3%), 보유하지 않음 125명(13.8%), 3~4벌 보유 90명(10.0%), 5벌 이상 8명(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춘추복 상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38.8%)가 다른 계절 작업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난 것은 춘추복 개념의 상의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대개의 경우 하복, 동복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복 상의 보유율이 87%로 나타난 것을 하복 상의 보유율 86.5%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동복 하의는 1~2벌 보유 566명(62.7%), 보유하지 않음이 232명(25.7%), 3~4벌 보유 91명(10.1%), 5벌 이상 14명(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한복 상의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60% 이상, 방한복 하의는 65% 이상이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방한복이 필요한 작업장과 그렇지 않은 작업장과의 차이 즉, 작업분야에 따른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2) 작업복 종류별 보유 여부

셔츠를 보유하는 경우는 475명(52.5%),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429명(47.5%)으로 나타났다. 조끼는 보유하는 경우는, 110명(12.2%),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794명(87.8%)으로 나타났다. 동복파카를 보유

<표 2> 작업복 보유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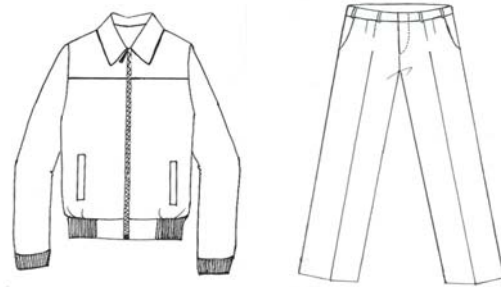
종류	수량	N	%	종류	수량	N	%			
춘추복	상의	없음	350	38.8	동복	없음	125	13.8		
		1~2벌	471	52.1		상의	1~2벌	680	75.3	
		3~4벌	70	7.8		상의	3~4벌	90	10.0	
		5벌 이상	12	1.3		상의	5벌 이상	8	0.9	
	하의	없음	424	47.0		하의	없음	232	25.7	
		1~2벌	401	44.5			하의	1~2벌	566	62.7
		3~4벌	63	17.0			하의	3~4벌	91	10.0
		5벌 이상	14	1.5			하의	5벌 이상	14	1.5
하복	상의	없음	122	13.5	방한복	상의	없음	563	62.4	
		1~2벌	655	72.5		상의	1~2벌	328	36.3	
		3~4벌	113	12.5		상의	3~4벌	10	1.1	
		5벌 이상	13	1.5		상의	5벌 이상	1	0.1	
	하의	없음	177	19.6		하의	없음	598	66.2	
		1~2벌	588	65.1			하의	1~2벌	301	33.4
		3~4벌	123	13.6			하의	3~4벌	4	0.4
		5벌 이상	15	1.6			하의	5벌 이상	0	0.0
합 계						903	100.0			

하는 경우는 151명(16.7%), 보유하지 않는 경우 753명(83.3%)으로 나타났다. 상하 부착된 형태의 원피스형 작업복은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869명(96.1%)으로 대부분이며 보유하는 경우는 35명(3.9%)으로 나타났다. 역시 작업분야에 따라 달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그림 4>.

3) 작업복 디자인 유형과 사용 소재

현재 착용하고 있는 작업복의 유형에 대해서는 7개 업체 방문 시 착용사항에 대해 연구자의 직접 확인에 의하면 조사대상 업체 모두 투피스 형태의 일반적 작업복 유형이었으며 작업복의 색상은 회색, 카키, 베이지와 같은 안정적인 색상이었다. 셔츠칼라나 스텐칼라에 앞 지퍼 여밈의 기본 점퍼 형태의 상의와 단추나 훅 앤드 아이와 지퍼로 여밈은 일자형 바지의 하의로 구성되어 있었다<그림 5>. 이는 특수 분야 작업복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작업복이 투피스 형태 이외에 커버롤(coverall), 혹은 오버롤(overall) 형태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¹⁴⁾¹⁵⁾과는 차이가 난다. 이는 일반 제조 기업체의 근로자와 특수 작업장의 근로자 작업복과는 환경에 따른 유형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기계공업 종사자 작업복 연구의 유형 조사¹⁶⁾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관리자와의 면담조사에 의해 작업복의 소재는 Polyester/Cotton(65/35%)혼방을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었으며, 하복의 경우 Polyester/Rayon(65/35%)혼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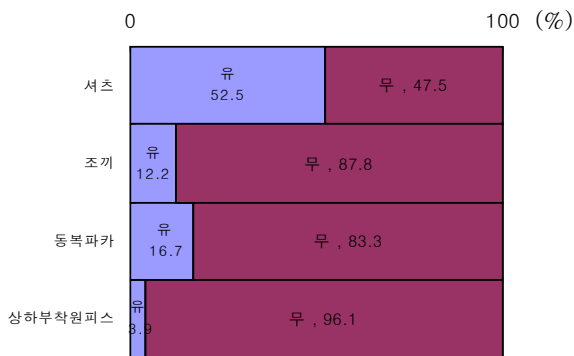
사용되기도 하였다. 조사대상 7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여름 반팔 셔츠의 기능성 소재로 Polyester 100%의 쿨론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림 5> 조사대상 기업체 작업복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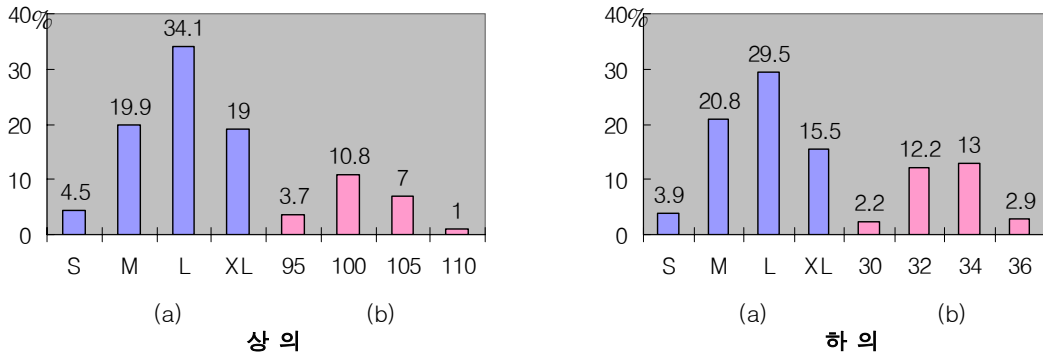
4) 작업복의 치수체계와 수선부위

현재 착용하고 있는 작업복의 치수체계를 살펴보면 상, 하의 모두 30~36(inch)/ 95~110(cm) 등의 inch/cm호칭보다 S, M, L, XL 등의 치수체계를 사용하였으며, 상, 하의 모두 L 치수를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그림 6>. 또한 이러한 치수체계로 제작된 작업복 중 가장 많이 수선하는 부위는 하의 길이로 53.3%나 수선하였으며, 그 다음 허리둘레 수선이 19.0%로 상의보다 하의 치수 수정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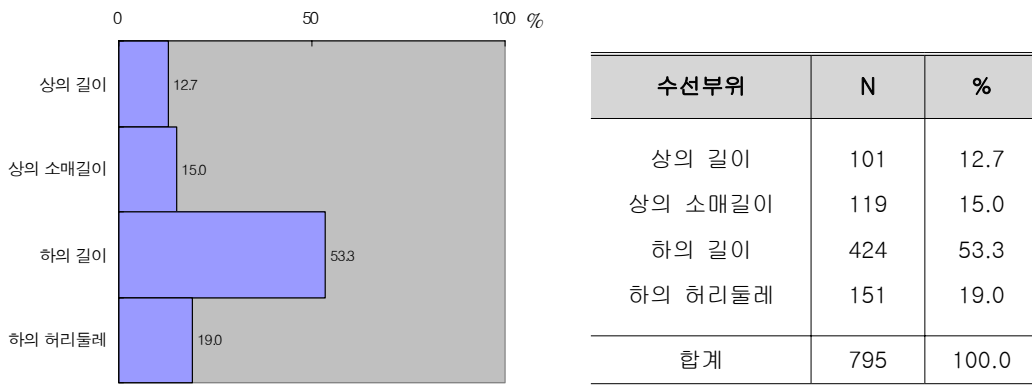


종류	보유여부	N	%
셔츠	유	475	52.5
	무	429	47.5
조끼	유	110	12.2
	무	794	87.8
동복파카	유	151	16.7
	무	753	83.3
상하부착원피스형	유	35	3.9
	무	869	96.1

<그림 4> 작업복 종류별 보유 수량



<그림 6> 작업복의 사용 치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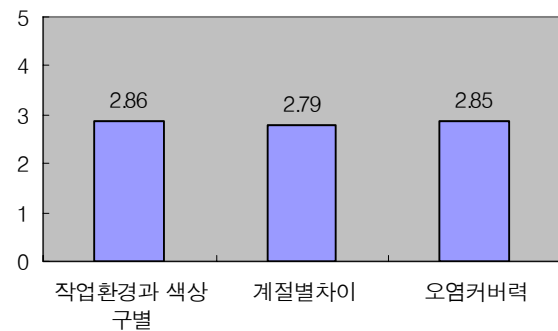


<그림 7> 작업복 수선부위

5) 작업복 색상 및 기업 이미지 만족도

(1) 색상 만족도

현재 착용하는 작업복의 색상 만족도에 대하여 5점 척도 평가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전체 평균 2.83으로 보통의 만족정도로 나타났다<그림 8>. 작업환경과 작업복 간의 색상이 구별되는지에 대하여 2.86의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작업복 색상 계절별 차이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2.79, 그리고 작업복 색상의 오염에 관한 만족도는 2.85로 평가되어 대부분 보통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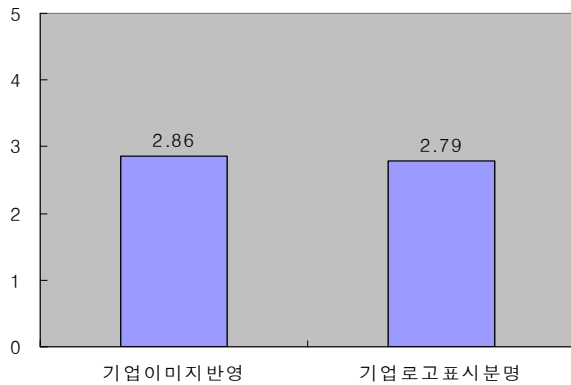


<그림 8> 작업복 색상 만족도

작업분야별 작업복의 색상 만족도는 작업환경과 색상구별 요인에서 제 1분야가 2.9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 4분야가 2.94로 나타나 실내에서 근무시간이 많은 사무직의 제 1집단의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오염 커버력의 요인에서는 제 1분야에서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 3, 4 분야의 현장 작업자일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현장 작업분야 보다 실내 사무직 분야에서 오염 커버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작업분야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2) 작업복 기업이미지 반영 만족도

조사대상 기업의 현재 착용하는 작업복 디자인에 기업이미지의 반영 현황은 기업 로고가 자수로 앞몸판 가슴 부위에 표시되거나 단추, 지퍼와 같은 잠금장치에 표시되는 정도로 나타났다. 현 작업복 디자인의 기업이미지 반영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 2.83으로 보통의 만족정도로 나타났다<그림 9>.



<그림 9> 작업복에 반영된 기업이미지 만족도

<표 3> 작업분야별 작업복 색상 만족도

색상만족요인 \ 작업분야	1	2	3	4	F
작업환경과 색상구별	2.96	2.80	2.74	2.94	2.365
계절별 차이	2.80	2.80	2.68	2.94	1.022
오염 커버력	3.11	2.88	2.62	2.77	8.832***

*** $p \leq 0.001$, ** $p \leq 0.01$, * $p \leq 0.05$

작업분야별 기업이미지 반영 만족도는 제 1, 4 분야가 3.09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제 2, 3 분야 또한 2.93, 2.97로 나타났고, 기업로고표시에 대한 만족도는 작업분야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3.2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표 4>.

(3) 작업복 디자인 불만족 부분

현재 착용하는 작업복 상의 디자인의 불만족 부분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상의 부분별 불만족은 소매부리 164명(14.8%), 주머니종류 143명(12.9%), 칼라 132명(12.0%), 안감 112명(10.2%), 허리단 110명(10.0%), 앞여밈 102명(9.2%), 소매 82명(7.4%), 앞몸판 80명(7.2%), 주머니 개수 70명(6.3%), 어깨 58명(5.3%), 뒷몸판 52명(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업복의 상의 디자인에 있어 소매부리에 가장 많은 불만족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주머니의 종류, 칼라, 허리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0>.

현재 착용 작업복 하의 디자인의 불만족 부분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하의 부분별 디자인 불만족은 허리벨트 162명(23.7%), 뒤주머니 136명(19.9%), 밑단 131명(19.2%), 앞여밈 92명(13.5%), 앞주머니 87명(12.7%), 주머니 위치 75명(11.0%)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1>.

6. 작업복 디자인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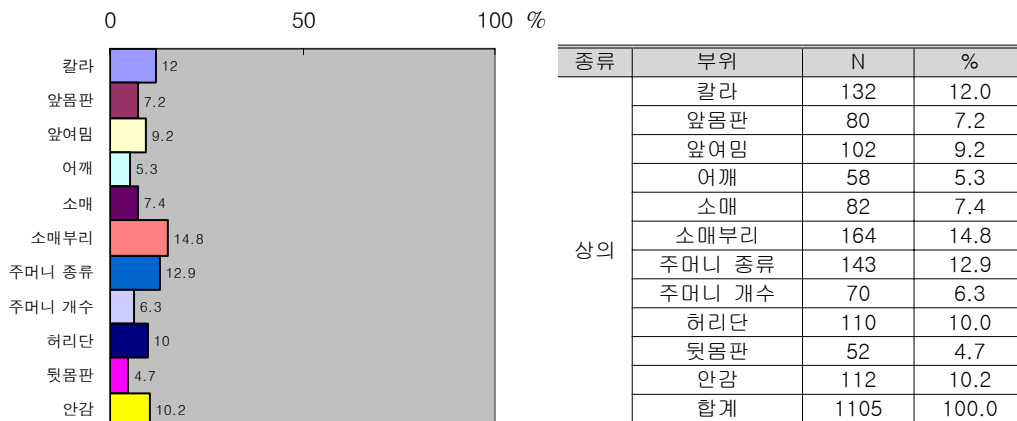
1) 선호 디자인 유형

선호하는 상의, 소매, 바지의 디자인 유형은 다음 <표 5>와 같다. 상의의 경우 셔츠칼라 형태의 기본형 디자인이 362명(40.6%)으로 가장 선호되었고, 다음으로 밴드 형태의 스포티형 337명(37.8%), 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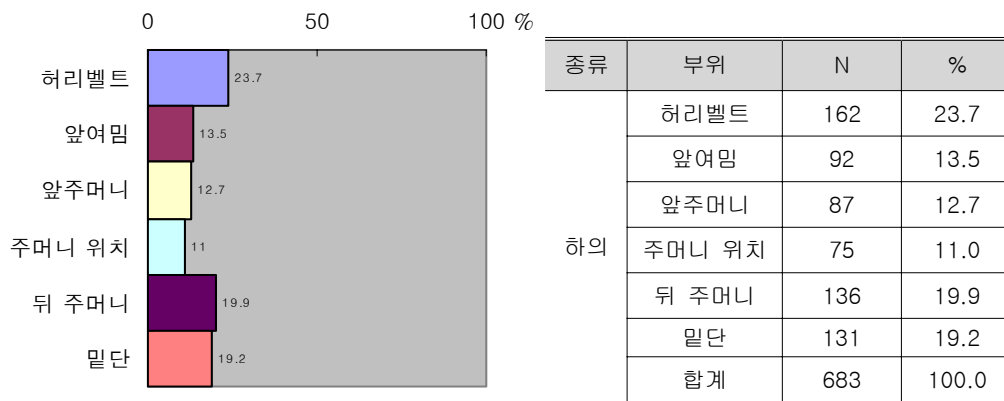
<표 4> 작업분야별 작업복 기업이미지 반영 만족도

기업이미지반영 \ 작업분야	1	2	3	4	F
기업이미지	3.09	2.93	2.97	3.09	1.49
기업로고	3.25	3.20	3.33	3.29	0.57

*** $p \leq 0.001$, ** $p \leq 0.01$, * $p \leq 0.05$



<그림 10> 작업복 상의 디자인 불만족 부분



<그림 11> 작업복 하의 디자인 불만족 부분

라가 없는 캐주얼형 193명(21.6%),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착용중인 기본형태가 1순위이긴 하지만 밴드 칼라가 부착된 스포티형 또한 1순위에 큰 차이 없이 선호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디자인 개발시에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호 소매 디자인은

스냅 여밈 스타일이 384명(43.5%), 단추 여밈 214명(24.2%), 일반 소매형 144명(16.4%), 고무 밴드형 140명(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업복 바지 선호디자인은 앞주름이 있는 정장바지 형태가 458명(51.7%)로 가장 선호하였고, 일자

형 면바지 형태 275명(31.3%), 바지밑단이 오므러지는 트레이닝 바지형태 150명(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성이 강조된 캐주얼스타일의 디자인 보다는 특별한 기능성이 강조되지 않은 정장스타일의 심플한 디자인이 선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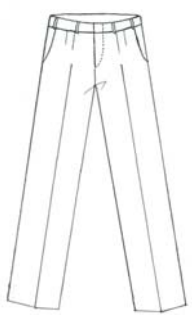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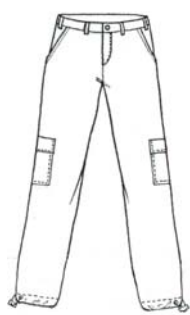
2) 선호 색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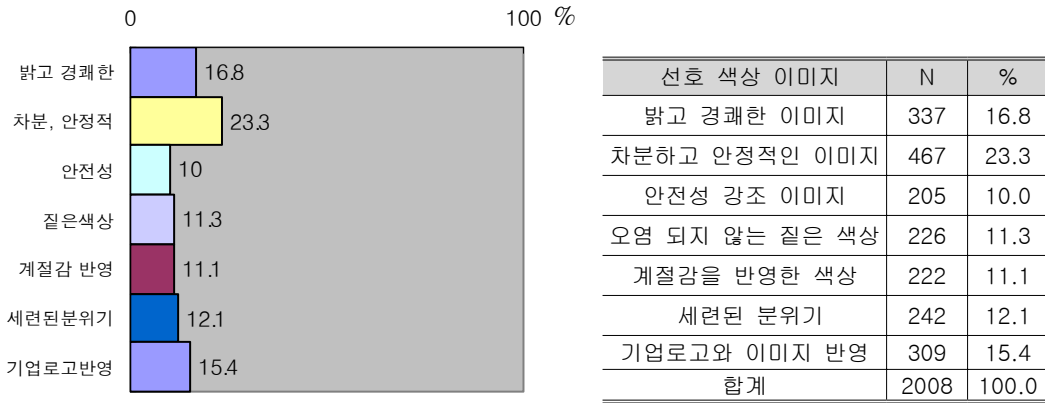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작업복 색상 이미지는 작업 분야에 관계없이 복수 응답한 결과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의 색상이 467명(23.3%)으로 가장 선호되었고, 다음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색상, 337명

(16.8%), 기업의 로고와 이미지를 반영한 색상-309명(15.4%), 유행색을 따른 세련된 분위기의 색상-242명(12.1%), 오염이 잘 되지 않는 짙은 색상-226명(11.3%), 계절감을 반영하는 색상-222명(11.1%), 눈에 띄어 안전성을 강조한 색상-205명(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염을 고려한 짙은 색상이나 안전을 고려한 눈에 띄는 색상 등의 기능성을 고려한 색상의 선호보다는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밝고 경쾌한 분위기 등의 심미성이 강조된 색상이 선호되었다는 사실이 특기할 만하다<그림 12>.

<표 5> 작업복 선호 디자인 유형

유형	빈도(%)			
	기본형 362(40.6)	스포티형 337(37.8)		캐주얼 193(21.6)
상의 (N=892)				
소매 (N=882)	일반소매 144(16.4)	단추 여밈 214(24.2)	스냅 여밈 384(43.5)	고무밴드 140(15.9)
				
바지 (N=883)	정장 바지 458(51.7)	일자형 바지 275(31.3)		트레이닝 바지 150(17.0)
				



<그림 12> 작업복 선호 색상 이미지

작업복 색상이미지에 대한 작업분야별 선호도 차이를 교차분석으로 살펴보았다<표 6>. 그 결과 눈에 띄도록 안전성을 강조한 색상이미지에 대한 요인에서 작업분야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제 1 작업 분야가 15.6%로 가장 낮고, 제 2, 3, 4 분야에서 각각 19.0%, 16.1%, 49.3%로 높아졌다. 이는 실내에서의 근무시간이 많은 사무직 작업분야보다는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분야로 갈수록 안전성이 많이 요구됨으로 눈에 띄는 색상 이미지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현장 근무자의 작업복 디자인에서는 반사나 형광 소재 등을 활용하여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오염이 잘 되지 않는 짙은 색상이미지의 요인은 제 4 분야에서 특히 짙은 색상 작업복을 선호하여 작업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생산 설비, 제조 등의 현장에서 작업하는 작업분야의 경우 작업강도가 크며 작업복의 오염이 잘 되는 작업환경 조건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계절감을 반영하는 색상이미지의 요인은 제 1 분야에서 제 4 분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행색상을 반영한 세련된 분위기의 색상이 이미지는 제 4 분야에서 가장 선호하였고, 제 3 분야의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작업분야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업의 로고와 이미지를 반영하는

<표 6> 작업분야별 작업복 선호 색상 이미지

작업분야 \ 색상이미지	빈도(%)				χ^2
	1	2	3	4	
밝고 경쾌한	69(20.5)	68(20.2)	51(15.1)	149(44.2)	5.061
차분, 안정적	118(25.3)	96(20.6)	63(13.5)	190(40.6)	.986
안전성 반영	32(15.6)	39(19.0)	33(16.1)	101(49.3)	13.870**
오염 커버 짙은색상	41(18.1)	26(11.5)	47(20.8)	112(49.6)	32.728***
계절감 반영	17 (9.2)	18 (9.1)	25(10.5)	32(12.7)	20.205***
유행, 세련된	22(11.9)	26(13.2)	19 (7.9)	33(13.1)	13.674**
기업이미지 반영	26(14.0)	30(15.2)	42(17.6)	38(15.1)	14.177**

*** $p \leq 0.001$, ** $p \leq 0.01$, * $p \leq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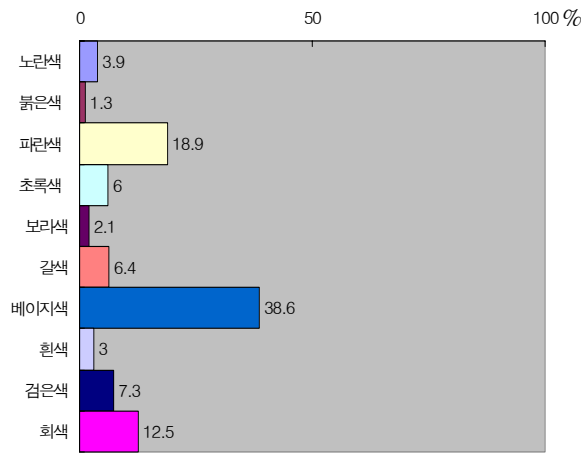
색상 이미지 선호에 대한 응답은 제 3 분야가 17.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 4, 2, 1 작업분야의 순으로 나타나 작업분야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

(1) 상의 선호 색상

작업복 상의 선호색상 선호도의 복수 응답한 결과 베이지색 406명(38.6%)으로 가장 선호되었다. 이는 색상 이미지에서 차분하고 안정적인 색상의 선호와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파랑색 198명(18.9%)으로 나타나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색상이미지 선호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회색 131명(12.5%), 검정색 77

명(7.3%), 갈색 67명(6.4%), 초록색 63명(6.0%), 노랑 41명(3.8%), 흰색 32명(3.0%), 보라색 22명(2.1%), 빨강색 14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3>.

작업복 상의의 선호색상에 대한 응답률의 작업분야별 차이를 보면, 파랑색상 요인은 제 1 작업분야에서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랑색상 요인은 제 4 분야가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선호도로 나타났다. 회색 요인에서는 제 4 분야가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 1, 3, 2 분야 순으로 선호하였다<표 7>.



선호 색상	N	%
노란색	41	3.9
붉은색	14	1.3
파란색	198	18.9
초록색	63	6.0
보라색	22	2.1
갈색	67	6.4
베이지색	406	38.6
흰색	32	3.0
검은색	77	7.3
회색	131	12.5
합계	1051	100.0

<그림 13> 상의 선호 색상

<표 7> 작업분야별 상의 선호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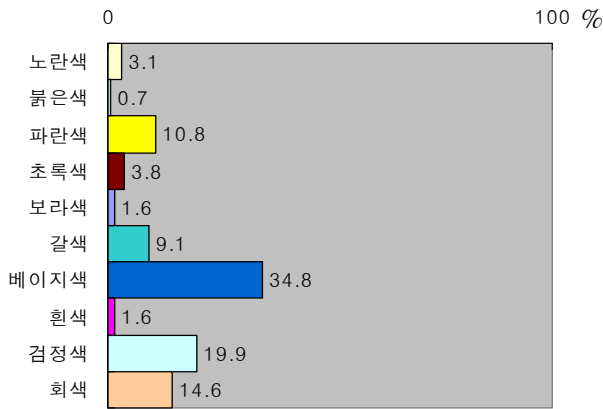
선호색상 \ 작업분야		빈도(%)				χ ²
		1	2	3	4	
상의	노랑	6(14.6)	15(36.6)	4(9.8)	16(39.0)	7.213
	빨강	3(21.4)	3(21.4)	2(14.3)	6(42.9)	0.060
	파랑	58(29.1)	28(14.1)	29(14.6)	84(42.2)	8.539*
	초록	15(23.8)	12(19.1)	5(7.9)	31(49.2)	3.127
	보라	4(18.2)	4(18.2)	2(9.1)	12(54.5)	1.863
	갈색	12(17.9)	10(14.9)	15(22.4)	30(44.8)	6.315
	베이지	103(25.4)	96(23.6)	46(11.3)	161(39.7)	7.070
	흰색	4(12.5)	7(21.9)	4(12.5)	17(53.1)	3.202
	검정	15(19.5)	22(28.6)	15(19.5)	25(32.4)	6.266
회색	22(16.8)	16(12.2)	21(16.0)	72(55.0)	17.159***	

***p<0.001, **p<0.01, *p<0.05

(2) 하의 선호 색상

작업복 하의 선호색상 선호도에 따른 복수 응답결과를 보면 베이지색 360명(34.8%)으로 가장 선호되었으며 이는 상의선호 색상과 동일하였다. 다음으로 검정 206명(19.9%), 회색 151명(14.6%), 파랑색 112명(10.8%), 갈색 94명(9.1%), 초록색 39명(3.8%), 노랑색 32명(3.1%), 흰색 17명(1.6%), 보라색 16명(1.6%), 빨강색 7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의는 무채색의 검정, 회색 등이 선호되어, 상의 선호 색상과 비교하여서 어두운 색상이 선호되었다<그림 14>.

작업복 하의의 선호색상에 대한 작업분야별 차이를 보면, 노랑색상 요인에서 제 2 작업분야의 응답률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검정색과 회색 요인은 제 4 분야가 각각 36.9%와 52.3%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베이지색은 제4 분야의 응답빈도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제 1, 2, 3 분야가 각각 28.9%, 21.9%, 8.1%의 순서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선호 색상	N	%
노랑색	32	3.1
붉은색	7	0.7
파란색	112	10.8
초록색	39	3.8
보라색	16	1.6
갈색	94	9.1
베이지색	360	34.8
흰색	17	1.6
검은색	206	19.9
회색	151	14.6
합계	1034	100.0

<그림 14> 하의 선호 색상

<표 8> 작업분야별 하의 선호 색상

선호색상 \ 작업분야		빈도(%)				χ ²
		1	2	3	4	
하의	노랑	4(12.5)	16(50.0)	2(6.2)	10(31.3)	17.373***
	빨강	2(28.6)	1(14.3)	1(14.3)	3(42.9)	0.214
	파랑	24(21.5)	22(19.6)	15(13.4)	51(45.5)	1.285
	초록	6(15.4)	5(12.8)	4(10.3)	24(61.5)	7.360
	보라	1(6.3)	2(12.5)	3(18.8)	10(62.5)	4.879
	갈색	25(26.6)	13(13.8)	16(17.0)	40(42.6)	3.544
	베이지	104(28.9)	79(21.9)	29(8.1)	148(41.1)	21.147***
	흰색	4(23.5)	3(17.6)	4(23.5)	6(35.4)	1.326
	검정	38(18.4)	51(24.8)	41(19.9)	76(36.9)	12.956**
	회색	30(19.9)	17(11.2)	25(16.6)	79(52.3)	16.386**

***p<0.001, **p<0.01, *p<0.05

(3) 디자인 추가 필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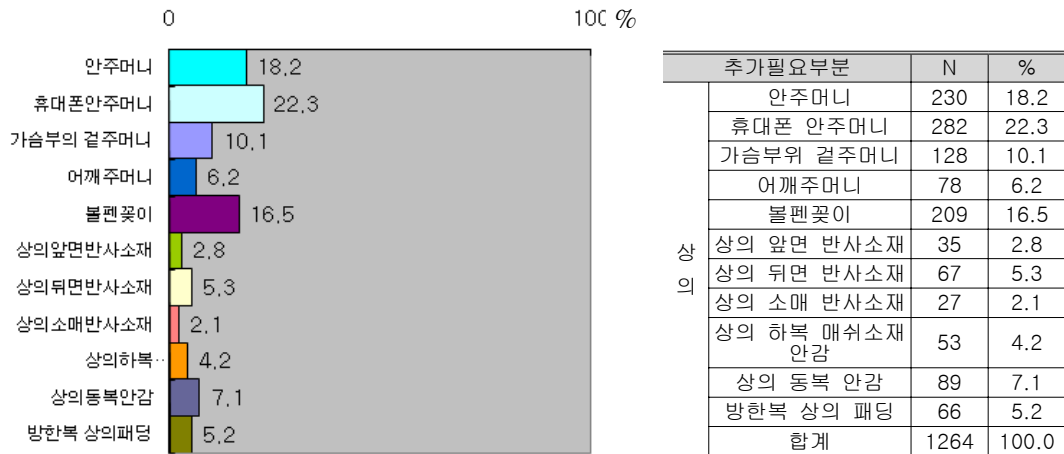
상의 디자인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작업분야에 관계없이 복수 응답한 결과 휴대폰 안주머니가 282명(22.3%)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하였고, 다음으로 안주머니 230명(18.2%), 볼펜꽂이 209명(16.5%), 가슴 겹주머니 128명(10.1%), 동복 안감 89명(7.1%), 어깨주머니 78명(6.2%), 뒷면 반사소재 67명(5.3%), 방한복 패딩 66명(5.2%), 하복 매쉬 소재 안감 53명(4.2%), 앞면 반사소재 35명(2.8%), 소매 반사소재 27명(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수납을 위한 다양한 주머니의 필요성이 강조된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고려한 반사 소재에 대한 필요성은 낮게 나타났다<그림 12>. 이는 현재 작업복이 안전성 측면에서 만족을 주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그동안 작업복은 기능성과 안전성을 우선시 하여 개발되어온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작업복 상의 추가필요 부분에 대한 작업분야별 응답현황을 살펴보면 안주머니 요인은 제 4, 2 작업분야에서 각각 48.2%, 18.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제 1, 3 분야로 갈수록 16.5%, 17.0%로 낮아져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휴대폰 안주머니는 제 4, 3 분야에서 각각 40.4%, 21.6% 응답하여 생산직 분야에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어깨주머니에 대한 요구는 제 2, 1 작업분야가 각각 30.8%, 25.6%

로 높게 응답하였다. 볼펜꽂이 요인은 제 4 작업분야에서 52.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제 사무직 분야로 갈수록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주로 생산직 분야에서 주머니를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하여 사무직의 실내 근로자보다 수납을 위한 주머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동복 안감 추가 요인 또한 실외 현장 작업분야 제 3, 4 분야로 갈수록 보온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실내 사무직 및 생산관리직 분야일수록 추가 필요성이 낮아져 작업분야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9>.

하의 디자인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 허리 벨트고리 추가가 175명(20.8%)으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다음으로 옆 주머니-113명(13.4%), 허리 여밈 안 단추-102명(12.1%), 동복 안감-96명(11.4%), 뒤주머니-86명(10.2%), 앞주머니-84명(10.0%), 무릎보호대-65명(7.7%), 방한복 패딩 안감-58명(6.9%), 뒷면 반사소재-22명(2.6%), 옆면 반사소재-21명(2.5%), 앞면 반사소재-20명(2.4%)의 순으로 나타났다. 허리부분의 벨트고리, 여밈 안 단추의 추가를 가장 필요로 하였다.

안정성을 고려한 반사소재는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선호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안전성을 추가로 보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보다는 작업자 개인의 필요성의 측



<그림 15> 상의 디자인 추가 필요 부분

면에서 하의 벨트나 허리 부분의 내구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볼 수 있다<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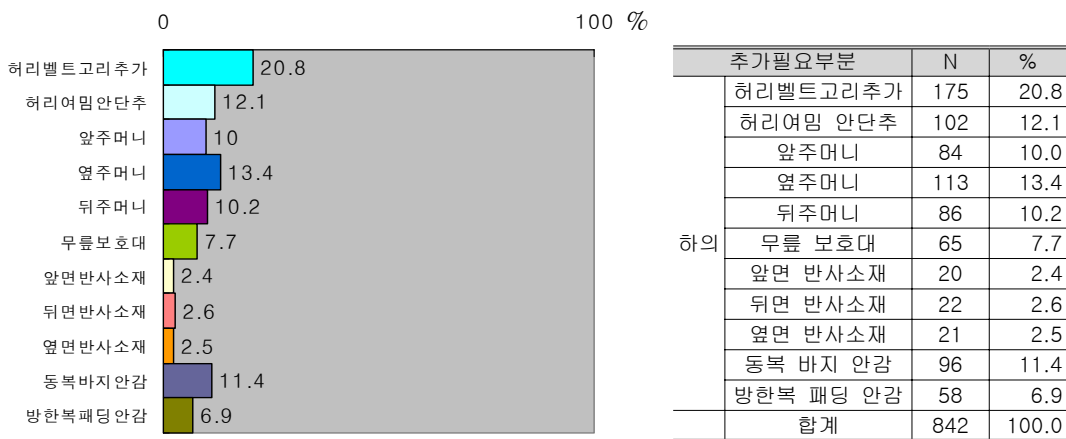
작업복 하의 추가 필요 부분에 대한 작업분야별 응답현황은 무릎보호소재에 대한 요구가 제 2, 1, 4, 3작업분야 순서로 38.4%, 27.7%, 23.1%, 10.8% 응답되었다. 이는 생산 제조적 분야에서는 작업 중 별도로 각반과 같은 보호구를 사용하고 있

으므로 기본 작업복에 추가로 무릎보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이고 그 외 작업분야에서는 따로 무릎 보호대가 부착되지 않은 기본형 작업복만으로는 작업현장과 밀접한 근무환경에서 무릎부분의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상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납공간인 주머니에 대한 요구가 제 4분야에서 47.7%로 높게 응답되어 작

<표 9> 작업분야별 상의 디자인 추가 필요 부분

작업분야 추가필요부분		빈도(%)				χ ²
		1	2	3	4	
상의	안주머니	38(16.5)	43(18.3)	39(17.0)	111(48.2)	14.424**
	휴대폰 안주머니	49(17.4)	58(20.6)	61(21.6)	114(40.4)	23.731***
	가슴부위 겹주머니	24(18.8)	29(22.7)	21(16.4)	54(42.1)	2.492
	어깨주머니	20(25.6)	24(30.8)	16(20.5)	18(23.1)	12.803**
	불펜꽂이	24(11.5)	38(18.2)	37(17.7)	110(52.6)	30.778***
	앞면반사소재	8(22.9)	9(25.7)	3(8.6)	15(42.8)	1.227
	뒤면반사소재	10(14.9)	12(17.9)	12(17.9)	33(49.3)	4.857
	소매반사소재	5(18.5)	5(18.5)	4(14.8)	13(48.2)	0.826
	하복 매쉬소재안감	11(20.8)	12(22.6)	6(11.3)	24(45.3)	0.919
	동복 안감	10(11.2)	12(13.5)	19(21.3)	48(53.9)	17.404***
	방한복 상의 패딩	13(19.7)	13(19.7)	13(19.7)	27(40.9)	2.162

***p<0.001, **p<0.01, *p<0.05



<그림 16> 하의 디자인 추가 필요 부분

<표 10> 작업분야별 하의 디자인 추가 필요 부분

		빈도(%)				
추가필요부분	작업분야	1	2	3	4	χ^2
	하의	허리벨트고리	44(25.1)	40(22.9)	31(17.7)	60(34.3)
허리여밈안단추		32(31.4)	17(16.7)	19(18.6)	34(33.3)	6.841
앞주머니		13(15.5)	16(19.1)	17(20.2)	38(45.2)	5.879
옆주머니		18(15.9)	22(19.5)	17(15.0)	56(49.6)	6.205
뒤주머니		16(18.6)	11(12.8)	18(20.9)	41(47.7)	8.492*
무릎보호대		18(27.7)	25(38.4)	7(10.8)	15(23.1)	16.272***
앞면반사소재		5(25.0)	0(0.0)	5(25.0)	10(50.0)	6.461
뒤면반사소재		5(22.7)	7(31.8)	2(9.1)	8(36.4)	1.742
옆면반사소재		1(4.8)	11(52.4)	1(4.8)	8(38.0)	14.632***
동복바지안감		16(16.6)	15(15.6)	18(18.8)	47(49.0)	7.343
방한복 패딩안감		3(5.2)	11(19.0)	14(24.1)	30(51.7)	15.500***

*** $p \leq 0.001$, ** $p \leq 0.01$, * $p \leq 0.05$

업분야별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옆면 반사소재는 생산기획 및 관리직인 제 2분야에서 52.4%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제 4 분야에서 38.0%로 응답하였다. 하의 방한복 패딩 안감 추가요인에서 작업분야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실외 현장 작업분야인 제 3, 4 분야로 갈수록 추가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10>.

V. 결론

본 연구는 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재 착용하고 있는 작업복의 디자인 실태를 조사 연구하고 디자인 만족도를 살펴보고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편리하고 심미적이며 상징적으로 우수한 근무복 디자인 개발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남자가 92%로 대부분이었으며 연령은 20~40대의 작업자가 85.6%를 차지하였고 학력은 고졸이 54.9%, 대졸 이상으로 43.4%를 차지하

여 비교적 높았다. 월 소득 역시 200~250만원 미만 이 25.4%, 250만원 이상이 48.2%를 차지하여 높았는데 이는 장기근속 근무자가 전체 응답자의 63.0%인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근무부서는 작업자의 신체 움직임의 강도와 빈도를 기준으로 제 1 분야는 사무직(24%)이며 제 2 분야는 생산 관리(21%), 제 3 분야는 생산 설비(14.2%), 제 4 분야는 생산 제조(40.8%) 분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작업복 보유 수량은 계절에 관계없이 약 70%이상이 1벌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춘추복 상의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춘추복 개념의 상의가 따로 구분되어있지 않고 대개의 경우 하복, 동복으로 이원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창원산업공단에서 현재 착용하고 있는 작업복 유형은 예외 없이 모두 투피스 형태의 작업복으로 셔츠칼라와 앞 지퍼 여밈의 기본 점퍼 형태의 상의와 단추나 훅 앤드 아이와 지퍼로 여밈은 일자형 바지의 하의로 구성되어 있었다. 방진성능이 필요한 특

수 작업장의 근로자 작업복인 오버를 스타일과는 다르는데 이는 작업환경에 따른 작업복 유형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착용하는 작업복의 색상 만족도는 전체 평균 2.83으로 보통의 만족정도로 나타났으며 작업복에 반영된 기업이미지에 대한 만족도도 전체 평균 2.83으로 보통의 만족정도로 나타났다. 작업복 상의 디자인의 불만족 부분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소매부리(14.8%), 주머니 종류(12.9%), 칼라(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의 디자인의 불만족 부분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허리벨트(23.7%), 뒤주머니(19.9%), 밑단(19.2%) 순으로 나타났다.

작업복 색상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의 색상을 가장 선호(23.3%)하였고, 다음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16.8%)를 선호하였다. 선호색상으로는 주로 오염성을 고려한 짙은 색상이나 안전성을 고려한 눈에 띄는 색상 등의 기능성을 고려한 색상 이미지보다는 심미성이 강조된 색상을 선호하였다. 작업분야별로는 실내에서의 근무시간이 많은 사무직 작업분야보다는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분야로 갈수록 안전성이 많이 요구되었고, 이는 현장 근무자의 작업복 디자인에 있어 반사, 형광 소재를 활용하여 작업복 디자인의 안전성을 더욱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산 설비, 제조 등의 현장에서 작업하는 작업분야의 경우 작업강도가 크며 작업복의 오염이 잘 되는 작업환경조건 때문으로 오염이 잘 되지 않는 짙은 색상이 선호되었다.

작업복 선호 색상은 상, 하의 모두 베이지를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는 선호하는 색상이미지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차분하고 안정적인 이미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의는 검정색, 회색 등의 무채색이 선호되었다. 상의로는 대체로 밝고, 경쾌한 안정적인 이미지의 색상을 선호하였으며, 하의는 무채색계열의 색상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작업복 상의 디자인은 칼라가 없는 캐주얼한 형태의 작업복 보다는 셔츠 칼라의 점퍼 스타일인 기본형을 선호하였고, 소매 디자인 또한 여밈의 편리성을 강조한 스냅 여밈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하의는 캐주얼 스타일이나 트레이닝 바지 스타일 보다는 신사

복 바지와 같은 일반적인 단순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이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외근 시 정장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장 근로자들에게서는 정서적으로 사무직과 동일한 형태를 원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작업복 디자인에 있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상의에서 휴대폰 안주머니, 안주머니, 볼펜꽂이 등 주로 수납을 위한 다양한 주머니의 필요성이 강조된 반면 안전성을 고려한 반사소재에 대한 필요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작업복이 안전성 위주로 개발 착용되어 왔기에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이해된다. 작업분야별로는 생산 설비 등의 실외 현장 작업분야일수록 수납을 위한 주머니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의는 허리벨트 고리 추가를 가장 많이 필요(20.8%)로 하였는데 이는 하의 작업복 불만족 응답 결과에서 허리벨트 부분의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실(23.7%)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공단의 제조 산업 생산현장에서 작업복을 실제로 착용하는 공단 근로자들의 작업복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를 심도 깊게 분석한 것으로 효과적인 제조 산업분야 작업복 디자인 개발에서 작업분야별로 요구하는 사항을 근거로 어떠한 디자인 요소를 보강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의 작업복 만족도와 선호도를 근거로 작업복의 디자인이 결정된 이후, 실제적 제작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써 기업 내의 작업분야별 작업복의 차별화로 인한 생산직과 사무 및 관리직 사이에 위화감 조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일 디자인에 차별화된 소재와 다양한 제작방법의 활용으로 작업복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기계, 자동차, 조선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를 항공이나 전기, 전자와 같은 산업 분야에 확대 적용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마랄린 홀 · 루이스 구렐(1988), *의복: 제2의 피부*, 이화연 · 민동원 · 손미영(역), 까치.
 - 2) 박선희 · 서미아 (1996), "직장 남성들의 근무복 실태조사 연구(1)", *복식문화연구*, 4(1), pp. 75-91.
 - 3) Ibid., pp. 75-91.
 - 4) 안미영 외 3인 (2006), "업무 유형에 따른 유니폼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2), pp. 306-315.
 - 5) 김장미 · 박혜원 (2006), "기업의 유니폼 디자인 개발 연구", *복식*, 56(5), p.79.
 - 6) 김성숙 · 김희은 (2006),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복 실태조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2), pp. 203-208.
 - 7) 김혜령 · 서미아 (2002), "기계공업종사자의 작업복 착용 실태조사 연구", *복식문화연구*, 10(6), pp. 718-734.
 - 8) 김혜령 · 서미아 (2003), "기계공업 종사자의 작업복 만족도 연구", *복식문화연구*, 11(6), pp. 867-878.
 - 9) 박순자 · 신정숙 · 정명희 (2003), "생활폐기물 소각장 작업자의 작업환경과 작업복 현황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7(8), pp. 992-1003.
 - 10) 배현숙 (2001), "자동차 제조업체 근로자의 작업복 착용실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9(7), pp. 115-124.
 - 11) 최정화 · 김소영 · 이주영 (2004), "철도 차량 정비 작업자의 부직포 보호 작업복 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8), pp. 1165-1174.
 - 12) 이옥희 · 홍병숙 (1997), "섬유업체 근로여성의 작업복 실태 및 선호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4), pp. 185-198.
 - 13) 창원시(2007. 4), *동남공단. 자료검색일* 2007. 4. 15 자료출처 <http://biz.gsnd.net>
 - 14) 박순자 · 신정숙 · 정명희, op.cit., p. 1003.
 - 15) 최정화 · 김소영 · 이주영, op.cit., pp. 1165-1168.
 - 16) 김혜령 · 서미아, op.cit., pp. 867-878.
-
- 접수일(2007년 11월 30일)
수정일(1차 : 2008년 1월 11일)
게재확정일(2008년 1월 14일)